

38 朝鮮年鑑(1848년판)

(조선연감)

1947년 12월경 서울에 있는 조선통사사
에서 편찬한 것인데 1926~1947년간의
기록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 해방후 최
초로 발행된 **속년鑑**(연감)이라 할수 있다
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
면에서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특히 군정

2년간의 행정과 재정에 관하여 상세한
통계를 제시 하고 있다

사회 일지 (社會日誌)가 흥미로운데 정량
단체 일지와 정제 인명록도 재미 있는 항
목이다 특히 정제 인명록에는 슬모성
(김안성)은 비롯한 슬元鳳(김노봉) 슬菓
(김채)과 武亭(무정)등 이북의 공산주의
자본은 기여 있다

이 책은은 모두에 <해방정위>란 항에
서 우리 ^{민중}해방의 계기를 민족의 태

평양 전쟁과 1945년 8월의 히로시마(廣島)
 와 나가사키(長崎)의 원폭 투하는 언
 급치 않고 8월 9일의 소련군 침전(인
 주 침공)이 되고 강변 되고 있다
 해방 직후 남한에는 상당수의 공산주의
 자들이 집조 되었었다는 것을 감안 하면
 언론기관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었
 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
 해방 직후 우리는 일찍이 겪어 본 지 못
 한 인플레이션(通貨膨脹)을 겪었다

그것은 필자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일
 이 있는데 1945년 4월 부터 해방이 된 후
 9월 까지 48억 1백 만 원(圓)이라는 화폐를
 찍어 내었기 때문이라 조선총독부 종정
 (總政) 기록에 따르면 해방 되던 해 봄부
 터 가족이 많은 공무원이 꼭히 있을
 필요도가 많은 일본인 등을 소환 해서 여러
 은행으로 돌아가라면서 막대한 퇴직금을
 지불하기 위한 조처였었다
 이 사실은 이 연감은 지적 ~~해~~ 하면서

물가 등기 폭이 르겠디고만 기록하고
 있다 이 인플레이션이 해방후 우리 경제에
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는것을
 알아두는 것이

해방 ~~후~~ 직후인 1946년말 현재 인구는
 19,369,270 이었고 해방 이전인 1945년말 인구는
 15,890,110 이었다

1946년 인구를 도별(道別)로 보면 경상(廣
 南)이 3,185,833 인 ~~이~~으로 수위를 차지 했고
 이어 경북(慶北) ~~전남~~전남(全南) 경기도

* (京畿道) 의 수원이고 도시는 서울시의 1,141,766
 인이 반면 수원시 27만 2천 5백 50명 부산(釜山)
 의 400,156인 대구(大邱)의 269,115인 인천(仁川)
 의 215,784인의 순으로 되어 있다

한편 항만 시설은 부산항이 해방 후에
 겨우 8,000 TON 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
 는 부두 시설이 제공 되었을 때
 선박은 1,000 TON 이상의 강철선 15척
 밖에 없었고 추력은 0.15 직전 남북은 통
 련이 3,000 대 밖에 없었다